

古地圖 京兆 四大門밖 지역 한자 異體字 비교 연구

이 경 원
(한양대학교)

1. 緒論

고대 우리나라 지도는 漢字로 필사되거나 판각되어 있다. 한자는 正字 외에 다양한 자형의 異體字를 지니고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일본 등 한자를 어문생활의 기본 혹은 보조 도구로 삼았던 국가의 상황은 대략 비슷하다. 이에 중국에서는 歷代로 이체자를 정리하고 정자표준을 제시하는 한자 標準化運動이 전개되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체자가 쉽게 근절되지 않은 것은 地域的 차이와 印刷術의 미발명이 가장 주된 요인이다. 지역적인 분열과 그것으로 인한 상이한 어문 정책은 한자 이체자가 발생하는 주요 경로이다¹⁾. 중국의 南北朝의 지역 분열로 대량의 楷書 이체자가 발생한 것과

-
- 1) 중국의 경우 역대로 통일국가가 등장하면 대개 한자 자형 표준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秦나라가 천하 통일 후 전개한 ‘書同文’이라는 小篆 위주의 한자 표준화 운동이다. 그 후 한자 표준화 운동의 결과물은 漢『熹平石經』·魏『正始石經』·唐『開成石經』 등이 있다. 그 가운데 唐代 楷書 표준화 정책의 결과물인 『開成石經』의 표준자형은 五代에 발명된 인쇄술과 어우러져 상승효과를 이끌어 내면서 이체자의 수량을 현저하게 감소시켰다. 그렇지만 기존의 이체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끈질긴 생명력으로 정자와 생존경쟁을 벌였으며, 또한 새로운 이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宋元以來俗字譜』에서 인용한 12종의 민간 판각본 작품에 나타난 다수의 이체자는 기존에 없었으며 새로 생성된 자형이다. 한자 문화권

현재 한국·중국·일본·대만·홍콩·마카오·싱가포르·베트남 등 漢字文化圈 국가에서 사용하는 한자 자형 상호간에 크고 작은 차이가 발생한 것이 바로 그 예증이다. 또 인쇄술이 발명되지 않았던 시기에 모든 문헌은 필사에 의존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필사자 개인의 서사습관이나 지식의 차이로 다양한 이체자형이 양산된 것이다.

본고는 우리나라 古代地圖에 나타난 한자의 異體字를 분석하여 그 樣相과 特徵을 귀납 정리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大東輿地圖』를 포함한 주요 고대 지도는 모두 한자로 필사되거나 판각되어 있다. 한정된 공간에 자연·인문정보를 필사하거나 판각해야하는 지도에는 기존의 이체자형이 널리 사용됨과 아울러 새로운 이체자가 발생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고지도에 나타나는 이체자형은 독도에 주된 저해요인이 되는데, 이로 인한 지도 판독의 오인 현상은 비밀비재하다. 예를 들면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고지도 원문분어 『靑邱要覽』2책·도성전도(7)·지명보기에서 ‘蠶頭(잠두)’를 ‘천두’라고 오기하고 있다. 또 동일 지도에서 지금 서울의 보신각에서 광고 쪽으로 청계천을 건너기 전까지 많은 가게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문분어 지명보기에서 ‘馬床綿子紙’ (마상면자지팡)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는 ‘馬床塵·綿子塵·紙塵’의 잘못이다. 이 부분에서는 특히 ‘广’을 ‘廣’자의 이체자로 오인하고 있다. 『大東地志(古 4790-37-1-15)』경기도·한성부 동일지역에 수많은 ‘塵’자가 출현하는데 모두 ‘市塵’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靑邱要覽』2책·도성전도(7) 표기된 ‘广’은 ‘廣’의 이체자가 아니라, 바로 ‘塵’자의 이체자형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广’자는 기존 문헌 자료에서는 ‘廣’·‘庵’의 이체자로만 쓰였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고지도에서 ‘广’을 ‘塵’의 이체자로 사용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위와 같은 판독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지도에 나타난 이체자형에 대한 연구는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에 본고는 『大東輿地圖』와 연원관계가 있는 5종의 지도에 수록된 京兆五部 지역에 나타난 한자 이체자형을 비교

국가인 우리나라 역시 漢籍자료에서 대량의 이체자형이 발견된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水(물)’와 ‘田(밭)’의 뜻을 합하여 ‘畚(논)’자와 같은 후기 회의자를 독자적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연구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한다. 본고의 주요 탐색 범위는 『大東輿地圖』1첩 8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다른 4종의 지도에도 기재 상황이 동일하거나 또는 축소되어 나타난다. 이 부분은 「京兆五部」 즉 지금 서울 지역의 사대문밖의 각종 자연·인문정보를 묘사하고 있다.

본고의 주요 탐구 과제는 ①『大東輿地圖』를 포함한 5종의 비교 대상 문헌 소개, ②5종 지도에 나타난 한자 이체자형 양상 분류, ③5종 지도에 나타난 한자 이체자의 특징 등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지도에 나타난 이체자형의 양상·원류·변이·창조 등 각종 현상을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고지도에 나타난 이체자의 특징과 규율을 통해 지도 판독 시에 해당 정자를 확인하고 인지하는데 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大東輿地圖』 등 5종 지도의 서울 권역에 대한 묘사

본고의 찬술목적은 金正浩가 제작한 『大東輿地圖』 등 5종의 고대 지도에 나타난 이체자의 비교 연구에 있다. 지금 서울에 해당하는 「京兆五部」 부분을 판각 또는 필사하고 있는 주요 지도는 『靑邱圖』·『靑邱要覽』·『東輿圖』·『大東輿地圖』·『大東方輿全圖』 등이 있다. 각각 『大東輿地圖』와의 연원관계²⁾ 및 「京兆五部」를 묘사한 권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靑邱圖』(1834년): 본고에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靑邱圖(古4709-21)』를 연구 비교 대상문헌으로 채택하였다³⁾. 『靑邱圖』는 『大東輿地圖』에 앞서서 제작되어 그 저본이 된 채색필사본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지역은 고대의 서울 권역인데, 『靑邱圖』에서 지금 서울

2) 『大東輿地圖』 등 5종 지도의 연원 관계에 대하여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지도 원문부어 부분 이기봉의 해제를 참고하였다. 본고의 찬술목적은 상기문헌에 나타난 이체자 양상의 분류와 특징 파악에 있기 때문에, 지도 상호간의 연원관계에 대해서는 기존 학설을 추종한다.

3) 본고에서 채택한 고지도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고지도 원문부어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http://e-kyujanggak.snu.ac.kr/>를 참고하길 바람.

권역이 그려진 부분은 다음과 같다. 『靑邱圖』의 4冊 16層 13版에 지금 서울의 동남부와 廣州권역이, 16層-14版에 서울 중심부와 서남부 고양, 양천, 시흥, 과천, 안산 등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靑邱要覽』의 「都城全圖」나 『大東輿地圖』·『大東方輿全圖』·『東輿圖』등의 「京兆五部」처럼 지금 서울 권역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세밀하게 묘사한 것은 아니다.

②『靑邱要覽』: 본고에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靑邱要覽(古4709-21A)』을 연구 비교 대상문헌으로 채택하였다. 본고가 채택한 『靑邱圖(古4709-21)』는 규장각고지도 해제에서 밝혔듯이 『靑邱圖』의 異本 가운데 하나이다. 『靑邱圖(古4709-21)』에 그려진 지금 서울 권역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靑邱要覽』2冊 16層 13版에서 지금 서울의 동남부와 廣州권역이, 16層-14版에 서울 중심부와 서남부 고양, 양천, 시흥, 과천, 안산 등이 그려져 있다. 둘째, 『靑邱要覽』1冊에 「都城全圖」(1)에서 「都城全圖」(4)까지는 지금 四大門안 서울의 종로를 경계로 북쪽 편을 동쪽부터 4부분으로 나누어서 상세하게 그리고 있다. 또 2冊에 都城全圖」(5)에서 「都城全圖」(8)까지는 종로를 경계로 남쪽을 동쪽부터 4부분으로 나누어서 상세하게 그리고 있다. 즉 四大門안 도성의 중심부를 어느 지도보다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③『東輿圖』(1856년?-1859년?): 본고에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東輿圖(奎-10340)』를 연구 비교 대상문헌으로 채택하였다. 본고가 채택한 『東輿圖(奎-10340)』는 규장각고지도 해제에서 밝혔듯이 『大東輿地圖』지도에 선행된 작업으로 그 저본이 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나, 또 한편에서는 『大東輿地圖』제작 이후에 필사된 것이라고도 한다. 『東輿圖』에 그려진 지금 서울 권역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東輿圖』·京兆五部』2첩 3열에서 四大門안을, 4열에서 지금 서울의 四大門밖 동쪽으로는 마장동까지, 서쪽으로는 행주산성까지, 남북으로는 한강이 북부터 삼각산까지 그리고 있다. 둘째, 14첩 4열에서 왼쪽 아래쪽 부분에 지금의 서울이 위치하고 동쪽으로 광주권역이 서쪽으로 양천·고양이, 남쪽으로 시흥·과천·안산 등이, 북쪽으로 양주가 그려져 있다.

④『大東輿地圖』(1861년): 본고에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에서 제공하는 『大東輿地圖(奎-10333)』를 연구 비교 대상문헌으로 채택하였다. 본고가 채택한 『大東輿地圖(奎-10333)』는 규장각고지도 해제에서 밝혔듯이 선행 제작된 필사본인 『東輿圖』에 의거하여 제작한 목판본이다. 즉 『東輿圖』를 저본으로 목판 인쇄한 것이다. 『大東輿地圖』에 그려진 지금 서울 권역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大東輿地圖·京兆五部』1첩 7면에 四大門안을, 1첩 8면에 지금 서울의 四大門밖 동쪽으로는 마장동까지, 서쪽으로는 행주산성까지, 남북으로는 한강이북부터 삼각산까지 그리고 있다. 둘째, 13첩 4면에서 왼쪽 아래쪽 부분에 치우쳐서 지금의 서울이 위치하고 동쪽으로 광주권역이 서쪽으로 양천·고양이, 남쪽으로 시흥·과천·안산 등이, 북쪽으로 양주가 그려져 있다.

⑤『大東方輿全圖』: 본고에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大東方輿全圖(奎-10341)』를 연구 비교 대상문헌으로 채택하였다. 본고가 채택한 『大東方輿全圖』는 규장각고지도 해제에서 밝혔듯이 『大東輿地圖』를 제작하기 위해 만든 선행 지도라는 설과 『大東輿地圖』의 제작 이후 필사했다는 두 가지 설이 공존하며,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⁴⁾. 『大東方輿全圖』에 그려진 지금 서울 권역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大東方輿全圖·京兆五部』1첩 7면에 四大門안을, 1첩 8면에 지금 서울의 四大門밖 동쪽으로는 마장동까지, 서쪽으로는 행주산성까지, 남북으로는 한강이북부터 삼각산까지 그리고 있다. 둘째, 13첩 6면에 왼쪽 아래쪽 부분에 치우쳐서 지금의 서울이 위치하고 동쪽으로 광주권역이 서쪽으로 양천·고양이, 남쪽으로 시흥·과천·안산 등이, 북쪽으로 양주가 그려져 있다⁵⁾.

종합하면 서울권역을 묘사한 상세도를 기준으로 보면, 『靑邱圖』와 『靑邱要覽』이 형식이 같고, 『東輿圖』·『大東輿地圖』·『大東方輿全圖』 등 3

-
- 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大東方輿全圖』에 대한 해제를 참고바람.
 5) 『東輿圖』의 14첩 4열과 「京兆五部」를 묘사한 2첩 3열·2첩 4열에 묘사된 권역과 각종 정보는 『大東輿地圖』의 13첩 4면과 「京兆五部」를 묘사한 1첩 7면·1첩 8면, 그리고 『大東方輿全圖』13첩 6면과 「京兆五部」를 묘사한 1첩 7면·1첩 8면과 비교하면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세 문헌의 직접적인 연원관계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종이 형식이 같다.

상기 5종 지도에 묘사된 서울 중심부와 그 권역을 묘사한 부분을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묘사 권역		『靑邱圖』	『靑邱要覽』	『東輿圖』	『大東輿地圖』	『大東方輿全圖』
서울권	동남부	4冊16層13版	2冊16層13版	14첩 4열	13첩 4면	13첩 6면
	중심/서남부	4冊16層14版	2冊16層14版			
서울	四大門안	無	1冊『都城全圖』 (1-4) 2冊『都城全圖』 (5-8)	『京兆五部』 2첩3열	『京兆五部』 1첩 7면	『京兆五部』 1첩 7면
	四大門밖	無		『京兆五部』 2첩 4열	『京兆五部』 1첩 8면	『京兆五部』 1첩 8면

본고의 주요 탐구 범위는 四大門밖의 지금 서울 권역이다. 따라서 본고의 주요 비교 대상은 『靑邱圖』의 4冊16層14版, 『靑邱要覽』의 2冊16層14版, 『東輿圖·京兆五部』2첩4열, 『大東輿地圖·京兆五部』1첩 8면, 『大東方輿全圖·京兆五部』1첩 8면이다. 5종 지도에서 주로 이 부분이 서울 四大門밖의 각종 정보를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체자형의 비교를 위하여 四大門안을 묘사한 『大東輿地圖·京兆五部』1첩 7면이나 『朝鮮地圖(奎-16030)』부분도 참고하였다. 왜냐하면 이런 지도의 四大門안을 묘사한 부분에서도 四大門밖의 정보가 일부 표기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동일 지도에서 동일 정보를 표기하면서도 각각 한자 자형을 달리한 경우를 비교 검토하기 위한 주요 참고 자료가 된다.

3. 京兆 四大門外 지역에 나타난 한자 異體字의 樣相

본고는 지도에 나타난 이체자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을 주요 탐구 과제로

삼았다. 이체자의 양상을 외형의 전체적인 변화에서 편방·부건·필획 순으로, 큰 범위에서 작은 부분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글자 전체에 변이가 발생한 것·편방에 변이가 발생한 것·部件6)에 변이가 발생한 것·필획에 변이가 발생한 것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에 따라 『大東輿地圖』 등 5종 지도에 나타난 이체자형의 양상을 다음과 같이 귀납 정리하였다.

3.1 전체 자형에서 변이가 발생한 이체자

『大東輿地圖』 등 5종 지도에 나타난 이체자형 가운데, 전체자형에서 변이가 일어난 예를 분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1 전체 자형을 간화한 이체자

① 樂→樂 : 安樂峴→安樂峴(『大』·1·8·B)⁷⁾.

② 興→興 : 興仁門→興仁門(『東』·2·4·B/『大』·1·8·B/『方』

-
- 6) 部件은 중국의 王寧이 제시한 새로운 문자학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한자의 구조를 분석할 때, 偏旁이란 말을 많이 쓴다. 편방은 한자의 형성구조에서 形旁과 聲旁으로 나누어 부르기도 하며, 때로는 부수 역할을 하는 形旁을 가리키기도 한다. 또한 한자가 주로 좌우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左旁과 右旁으로 나누어 부르기도 한다. 部件은 한자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하나로, 필획보다는 크고 편방보다는 작은 단위이다. 예를 들어 興 자는 소전에서 車를 形旁{의미부}으로 聿을 聲旁{소리부}으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그리고 臼·車·卩의 部件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聲旁{소리부}인 夨편방은 다시 臼와 卩과 같은 部件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 7) 『大東輿地圖·京兆五部』2첩4면, 『大東輿地圖·京兆五部』1첩 8면, 『大東方輿全圖·京兆五部』1첩 8면은 모두 지금 서울의 四大門밖을 그리고 있다. 본고에서는 서술의 편의를 위해 興仁門(지금의 동대문)과 敦義門(지금의 서대문)을 기준으로 동서로 가르고, 北岳(지금의 북악산)과 木覓山(지금의 남산)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갈라서 구역을 나누었다. 그리고 상좌부분을 A구역, 상우부분을 B구역, 하좌부분을 C구역, 하우부분을 D구역이라고 구분하였다. 출처 기재의 편의를 위해 『靑邱圖』를 『靑』, 『靑邱要覽』을 『要』, 『大東輿圖』를 『東』, 『大東輿地圖』를 『大』, 『大東方輿全圖』를 『方』이라고 약칭한다. 본문에서 예로 든 樂→樂 : 安樂峴→安樂峴(『大』·1·8·B)에서 『大』는 『大東輿地圖』, 1은 1첩, 8은 8면, B는 필자가 정리의 편의를 위하여 나는 4개 구역 가운데 B구역을 나타낸다.

· 1 · 8 · B), 始興間路→始興間路(『東』· 2 · 4 · B), 始興路→始興路(『東』· 2 · 4 · B). 廣興倉→廣興倉(『青』· 4 · 16 · 14/『東』· 2 · 4 · B/大』· 1 · 8 · B)⁸⁾.

③龍→龍⁹⁾ : 龍山→龍山(『青』· 4 · 16 · 14/『東』· 2 · 4 · B).

④舊→旧¹⁰⁾ : 舊馬場→旧馬場(『青』· 4 · 16 · 14/大』· 1 · 8 · D), 舊馬場內→旧馬場內(『東』· 2 · 4 · D).

⑤萬→万 : 萬里倉→万里倉(『東』· 2 · 4 · C).

이 가운데 ①②③은 주로 초서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한자 전체 자형에서 변이가 발생하였으며, 정자와 비교하면 대폭 간화된 현상을 보인다. 또 ④는 白의 이체자인 旧를 임시로 舊의 이체자형으로 삼았고, ⑤는 독립적으로 형음의 의미를 가진 万자를 임시 방편으로 萬자의 이체자로 사용한 것이다. 후에 旧와 万은 각각 舊와 萬의 이체자로 굳어진다. 현재 중국 간화자에서는 旧와 万을 규범자형으로 간주하고 있다.

8) 興을 興으로 쓴 예는 廣興倉을 廣興倉으로 표기한 곳에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青』· 4 · 16 · 14'는 『青邱圖』의 4책, 16頁, 14版'에 해당 이체자형이 표기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興'자형은 1936년 國民黨정부가 발표한 『第一批簡體字表· 上韻』에서 '興'의 간체자로 채택되었으나, 1956년 중국에서 공포한 『漢字簡化方案· 第一表』에서는 '興'자형을 채택하였다.

9) 龍은 龍의 이체자형이다. 『龍龕手鑑· 立部』에서 '龍'을 龍의 고문이라고 하였고, 『集韻· 平聲· 鍾韻』에서 :“龍, 古作龍龕龕龕.”라고 하였는데, 龍은 '龍'의 와변된 자형임을 알 수 있다. 지금 일본에서는 '龍'이 표준자체(JIS)로 사용되고 있다.

10) 『字學三正· 體製上· 時俗杜撰字』에서 :“舊, 俗作旧.”라고 하여, 이 자형은 당시 세간에서 함부로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干祿字書· 上聲』에서 :“旧曰, 上俗下正.”라고 하였고, 『干祿字書· 去聲』에서 :“舊舊, 上俗下正”라고 하였다. 『宋元以來俗字譜· 白部』에서 舊의 속자로 旧를 신고 있다. 이를 통해 唐代까지는 旧는 주로 白의 속자로 쓰였고, 그 뒤 舊의 속자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六書正譌· 去聲· 宥候幼韻』에서 :“舊, 舊留也.....俗作舊舊非非”라고 하였다. 종합하면 旧는 원래 白의 속자형으로 사용되었고, 舊자가 舊처럼 아래 편방 白가 旧로 간략화되면서, 宋元이후 통속소설 같은 판본에서 변이된 旧를 분리 채택하여 舊의 이체자형으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중국 간화자에서 舊의 표준 자형은 旧이다. 본고에서 인용한 중국 고대 자전류 내용 가운데, 필자가 소장하지 않은 전적은 中華民國 教育部編 『異體字典』에서 재인용하였음을 밝힌다. 자세한 것은 인터넷사이트 <http://dict.variants.moe.edu.tw/fulu/fu5/kor/kor102.htm>를 참고하기 바람.

위와 같은 異體字例는 주로 복잡한 자형을 가진 한자에서 발생하는데, 한정된 공간에 서사나 판각 등 표기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3.1.2 전체 자형이 근사하여 오용한 것

① 万→𠂔 : 万里峴→𠂔里峴(『東』·2·4·C/『大』·1·8·C), 萬里倉→𠂔里倉(『大』·1·8·C).

‘万’은 독립적인 형음의를 가진 글자이지만, ‘萬’의 이체자 역할도 담당하였다. ‘𠂔’자 역시 독립적인 형음의를 가진 글자인 동시에, ‘巧’와 ‘考’의 이체자로 다중배역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万’과 자형이 비슷하여 혼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樂→禾 : 安樂峴→安禾峴¹¹⁾(『方』·1·8·B).

『大東輿地圖』에서 ‘安樂峴’을 ‘安禾峴’으로 표기하였는데, 『大東方輿全圖』에서 ‘樂’을 ‘禾’으로 誤寫한 것이다. 이를 통해 『大東方輿全圖』는 『大東輿地圖』를 저본으로 필사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만약 일설처럼 『大東方輿全圖』가 『大東輿地圖』의 저본이 된 선행 제작 결과물이라면, ‘樂’을 ‘禾’로 오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오사 현상은 유관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무조건 필사할 경우에 흔히 발생하는 것이다.

③ 間→囧 : 幸州間路→幸州囧路¹²⁾(『東』·2·4·A).

『大東輿地圖』에서 幸州間路로 판각되어 있는데, 『東輿圖』에서 ‘間’자를 ‘囧’자로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間의 이체자형인 ‘間’을 ‘回’의 이체자형인 ‘囧’와 착각한 것이다. 또한 행정구역인 面과 길표시인 間路의 間의 연관성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에 間자를 囧로 잘못 쓰게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규장각소장본 『東輿圖』가 김정호의 원본이 아닌 타인의 필사본이라

11) 『大東輿地圖』에서는 ‘樂’이 ‘樂’로 판각되어 있는데, 『大東方輿全圖』에는 ‘禾’처럼 판각되어 있다. ‘樂’의 오각인 것으로 판단된다.

12) 『大東方輿全圖』에는 幸州間路, 『大東輿地圖』에는 幸州囧路로 되어 있다. ‘間’은 ‘間’의 門 편방이 초서의 영향을 받아 변이된 이체자이다. 『東輿圖』에서는 ‘間’의 영향을 받아 ‘囧’으로 오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는 것을 증명한다. 지리에 밝은 지도제작자기 이런 실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유관지식이 부족한 필사자에 의한 오류라고 판단된다.

④孝→李 : 孝敬峯→李敬峯¹³⁾(『東』·2·4·A).

孝敬峯은 『大東輿地圖』에 孝_敬峯으로, 『大東方輿全圖』에 孝_敬峯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東輿圖』의 李敬峯은 오사로 보인다. 孝와 李가 자형이 근사하여 오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⑤畚→沓 : 畚洞→沓洞(『方』·1·8·A).

沓¹⁴⁾은 한국에서 만든 한자이다. 논을 중국에서는 ‘水田’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水’와 ‘田’을 합하여 새로운 회의자를 만든 것이다. 즉 ‘水田(물이 있는 밭)’이 ‘沓(논)’이라고 회의방식을 적용하여 만든 한자이다. 한자의 가장 큰 특성은 表意이다. 즉 자형에서 뜻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한자는 표음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표의특성이 급감하게 되었다. 象形·指事·會意 등 三書는 한자의 표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구조이다. 한자를 주요 문자로 사용하지 않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형성자보다는 의미편방 조합에서 뜻이 보이는 회의자가 표의성에서 더욱 명확하여 후기 회의자가 많이 탄생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면¹⁵⁾ 『玉彙』에서 ‘儒’를 ‘攸’의, 『韓國俗字譜』人

13) 『東輿圖』에는 ‘孝敬峯’이 ‘李敬峯’으로 되어 있다. ‘李’는 ‘孝’의 오각으로 판단된다.

14) 沓은 한국에서 회의 방식을 적용하여 만들 한자이다. 조선 정동유(鄭東愈)의 『주영편(晝永篇)』에서 :“我東有兩字合爲一字者, 以水田爲沓有一字.”라고 하였다. 또 이덕무(李德懋)가 쓴 『양엽기(盎葉記)』에 :“我國以水田爲沓, 沓沓.”라고 하였다. 또 홍만중(洪萬宗)의 『순오지(旬五志)』에서 :“俗以水田爲沓.”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沓자는 한국에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도 이 沓자를 한국 특유의 한자라고 소개하고 있다. 상기 자료의 출처는 中華民國 教育部編 『異體字典』에 부록된 「韓國特用漢字表」田部에 수록되어 있다. 인터넷사이트 <http://dict.variants.moe.edu.tw/fulu/fu5/kor/kor102.htm>을 참고하기 바람. 또 중국에서 가장 큰 검색엔진 百度의 중국어사전과 백과사전의 沓자에 대한 해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沓 【拼音】 [[tap][dā bo][ㄊㄨㄛˋ ㄊㄨㄛˋ] 【字義】 : 水田 : ~結(水田稅). ~穀(水稻). ~農(水田農). ~主(水田主). ~土(水田地). (韓國漢字). 이처럼 중국에서는 沓의 자음은 ‘답([[tap][dā bo][ㄊㄨㄛˋ ㄊㄨㄛˋ])’이며, 한국 특유의 한자로 인식하고 있다.

15) 한국 문헌에 보이는 이체자는 주로 『한국한자이체조사(韓國漢字異體字調查)』(국립국어연구원, 2002년 12월)·『韓國俗字譜』(아세아문화사, 1986년 8월) 등을

部 번호8-600에 ‘儒’를 ‘攸’의 이체자로 수록하고 있다. ‘文人(글을 하는 사람)’은 ‘儒(선비, 유학자)’라고 회의방식을 적용하여 만든 한자이다. 『方』·1·8·A에서 𠄎을 자형이 근사한 𠄎으로 誤寫하고 있다.

⑥西→𠄎 : 〇西城→𠄎城(『青』·4·16·14/『要』·2·16·14/『東』·2·4·A), 西江→𠄎江(『青』·4·16·14/『要』·2·16·14/『東』·2·4·C/『大』·1·8·C), 西活人署→𠄎活人署(『東』·2·4·C/『大』·1·8·C), 西氷庫→𠄎氷庫(『東』·2·4·C/『大』·1·8·C).

西와 𠄎(위쪽에 위치할 때 𠄎로 변함)와 𠄎나 도는 해서에 이르러 자형이 비슷해져서 서로 쉽게 혼용되었다. 그래서 唐나라 『五經文字』𠄎部 각주에서 :“𠄎部, 大 ㄹ 反, 『說文』作 𠄎, 象草木實垂條形, 今經典相承作 𠄎, 東西之西, 從 八, 與此不同(𠄎部, 자음은 大 ㄹ 반절이다. 『說文』에서는 𠄎 로 썼는데, 초목의 열매와 아래로 늘어진 (가지) 모양을 본 뜬 것이다. 지금 ‘經典相承(경전에서 널리 전승하여 쓰이는 자형)’은 𠄎로 쓴다. 東西의 西는 八을 구성요소로 하는데, 이것과는 다른 글자이다.”라고 하였다. 즉 楷書에 이르러 자형이 근사해진 西 와 𠄎를 구분할 것을 깨우쳐 주고 있다.

물론 이 두 자형의 관계를 筆形이 西자의 구분러진 儿부분이 𠄎자의 ㄹ 처럼 곧게 퍼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필획이 변이된 이체자로 분류하여도 무방할 것이며, 판각이나 필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3.2 六書 구조 변화로 발생한 이체자

3.2.1 六書 구조가 다른 것으로 변화된 이체자

육서 구조에는 상형·지사·회의·상형 등이 있는데, 지도에서 발견된 이체자형 가운데 기존 육서 구조에 변화가 발생한 예가 발견된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2.1.1 象形에서 形聲으로 바뀐 것

주로 참고 하였다.

岳→嶽(嶽) : 白岳→嶽(嶽)(『要』·2·16·14).

段玉裁『說文解字注』山部에서 :“嶽, 東岱, 南霍, 西華, 北恒, 中泰室, 王者之所以巡守所至. 從山獄聲. 岳, 古文, 象高形(嶽은 동악인泰山, 남악인衡山, 서악인華山, 북악인恒山, 중앙인崇山 등을 가리킨다. 산을 의미부로 獄을 소리부로 구성되어 있다. 岳은 古文 嶽자로 (산이)높은 모양을 본 뜬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岳은 고문으로 높고 큰 산을 본 뜬 상형자이다. 후에 한자 표음화의 추세를 따라가기 위하여 산을 의미부로 獄을 성부로 형성자를 새롭게 만든 것이다. 이는 한자가 표음화의 추세를 따라가기 위하여 象形을 形聲으로 바꾼 예이다. 이처럼 미흡하지만 한자가 부단하게 表音化를 추구하는 形聲字를 만들면서, 한자는 도태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3.2.1.2 形聲에서 會意로 바뀐 것

①歸→故 : 歸農串→故農串(『東』·2·4·A/『大』·1·8·A/『方』·1·8·A).

『廣韻·入聲·二十·陌韻』에서 :“迫, 逼也, 近也, 急也, 附也. 故, 上同(迫은 닥치다·접근하다·급박하다·가깝다는 뜻이다. 故은 위와 같은 글자이다.”라고 하였고, 또 같은 陌韻에서 :“故, 大打也(故은 크게 때리다(후려치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故자는 원래 크게 때리다(후려치다)는 뜻을 가진 독립된 글자이며, 또 迫자의 이체자로 이중 배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故과 歸는 무슨 관련성이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歸의 이체자로 쓰인 故자는 飯의 訛變된 형태이다. 歸의 이체자로는 飯·飯 · 𩇛·𩇛¹⁶⁾ 등이 있는데, 모두 후기 會意字이다. 形聲字인

16) 514년 江式的 「古今文字表」에서 :“世易風移, 文字改變, 篆形謬錯, 隸體失真, 俗學鄙陋, 復加虛巧, 談辯之士, 又以意說, 炫惑於時, 難以厘改.....乃曰𩇛爲歸, 巧言爲辯, 神虫爲蠶.....如斯甚重, 皆不合孔氏古書, 史籀大篆, 許氏說文, 石經三字也.”라고 하였다. 또 『顏氏家訓·雜藝篇』에서 :“北朝喪亂之餘, 書迹鄙陋, 加以專輒造字, 猥拙甚於江南. 乃以百念爲憂, 言反爲變, 不用爲罷, 𩇛爲歸, 更生爲蘇, 先人爲老, 如此非一, 徧滿經傳.”라고 하였다. 『正名要錄』: “歸飯, 蘇甦.....罷甦...覓覓...變訛...蠶醜...右正行者正體, 脚注訛俗”라고 하

:“岩, 俗嶷字. 巖俗省作岩.”라고 하여 岩·嶷·巖 등 3자형을 동자로 보았다. ‘岩’은 또 독립적인 음의를 가진 개별자이지만 ‘巖’의 이체자로도 사용된 것이다.

③ 蠶→蚕 : ◦蠶頭→蚕頭(『要』·2·16·14/『東』·2·4·C/『大』·1·8·C/『方』·1·8·C).

段玉裁『說文解字注』虫部에서 :“蠶, 任絲蟲也. 從虫替聲(蠶은 실을 잉태한 벌레(누에)라는 뜻이다. 虫을 의미부로 替을 소리부로 구성된 형성자이다.)”라고 하였다. 『玉篇·虫部』에서 :“蚕, 天殄切. 豎蚕, 蜚蠊也(蚕의 자음은 天殄반절이다. 豎蚕(지렁이)이다. 즉 蜚蠊也(지렁이이다)”라고 하였고, 『字彙·虫部』에서 :“蚕, 他典切, 天, 上聲. 蛭蠊即寒蛭也. ◦俗用蠶字, 非(蚕의 자음은 他典반절이다. 자음은 天으로 上聲이다. 蛭蠊으로 즉 寒蛭也(지렁이이다). ◦蠶자의 속자로 쓰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蠶은 독자적인 形音義를 가진 개별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蠶자의 이체자형으로 쓰인다. 또 天和 虫의 조합은 神+虫과 같이 후기 회의자 조자 개념에 맞아 떨어진다. 즉 ‘하늘(天)에서 내려준 (고마운)벌레(虫)’가 ‘蚕’이며, 또 ‘신령(神)스런 벌레(虫)’가 蠶인 것이다. 蠶자의 이체자형은 ‘蚘’이 ‘天天’으로 변이되고, 蠶처럼 ‘天’이 생략된 뒤, 마지막으로 ‘虫’이 ‘虫’처럼 변화되면서 ‘蚕’자를 조자하였거나, 아니면 기존의 ‘지렁이’를 나타내는 ‘蚕’자를 빌려 쓰게 된 것 등 두 가지 방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玉篇·虫部』에서 :“蚕, 天殄切. 豎蚕, 蜚蠊也.”라고 하였고, 또 『玉篇·虫部』에서 :“蠶, 在含切. 吐絲者.”라고 하였고, 또 『玉篇·虫部』에서 :“蠶, 自含切. 俗蠶字.”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玉篇』에서는 ‘蚕(지렁이)’과 ‘蠶(누에)’은 개별자이며, 이체자의 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蠶’은 ‘蠶’의 이체자로 ‘神(신령스런)+虫(벌레)’라는 조합으로 이루어진 후기 회의자이다. ‘蠶’과 ‘蚕’의 관계는 아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蠶’과 ‘蚕’은 개별자로, 각각 독자적인 音義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蚕’은 보편적으로 ‘蠶’의 이체자로 나타난다. ‘蠶’에서 중첩된 편방 ‘天’과 ‘虫’이 단일화되어 ‘蚕’자형으로 간략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하늘(天)에서 내려준 (고마운)벌레(虫)’라는 조합으로 이루어진 후기 회의자 ‘蠶’이 탄생한 것이다. 이는 ‘蠶’의 또 다른 이체자 ‘蠶’자가 ‘神(신령스런)+虫(벌레)’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후기회의자의 조자 방식과 같은 것이다.

후기자인 ‘蠶’이 ‘지렁이’를 나타내기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고, ‘누에’를 나타내는 ‘天+虫’이라는 후기 회의자가 만들어진 뒤, 별도로 ‘지렁이’라는 뜻을 나타내게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누에’와 ‘지렁이’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벌레로 형체 또한 매우 근사하다. ‘蠶’자 외에 ‘蠶’자 역시 후기 회의자이다.

蠶은 원래 독자적인 음의를 가진 개별자이지만, 후에 蠶의 이체자로도 사용되었다. 이때의 관계는 이체자가 아닌, 동형자의 관계이다. 그러나 결국 蠶은 蠶의 이체자형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현재 중국에서 蠶의 간화자는 蠶이다.

3.3 偏旁에서 변이가 발생한 이체자

3.3.1 偏旁을 바꾸어 후기 회의자를 만든 것¹⁹⁾

원래 會意 구조에서 다른 會意 구조로 바뀐 이체자이다. 둘 이상의 의미부 가운데 하나가 다른 편방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속하는 이체자형은 일반적으로 후기회의자라고 한다. 이런 이체자 형식을 형성자의 의미부가 바뀐 곳에 넣기에는 부적합하다. 아래에 소속된 異體字例처럼 모든 편방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會意現象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① 覓→覓 : 木覓山→木覓山²⁰⁾(『要』·2·16·14/『東』·2·4·D/『

19) 이처럼 후기 회의자는 의미부가 교체된 것이지만, 의미부 사이에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 爪와 不은 의미상 관계가 없다(어떤 사람은 覓의 不을 爪의 변형으로 보지만, 여기서는 爪와 覓회의에서 不과 覓(보이지 않으니까 찾는다)는 의미조합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것을 의미부 교체에 놓아서 설명이 되지 않고 전체 회의방식에서 논해야 한다. 國과 田도 마찬가지이다.

20) ‘木覓’은 『東國輿地圖』(규장각 古4709-96)의 경기도 부분에 ‘木覓’, 『輿地圖』(규장각 古4709-58)경기도 부분에 ‘木覓’, 『朝鮮地圖』(규장각 古4709-32) 경기

大』·1·8·D/『方』·1·8·D/).

寬은 覓자의 육조시기에 만들어진 후기 회의자이다. 이를 단순하게 형부가 교체된 이체자에 넣기에는 편방간의 밀접한 구성에 의한 회의 현상을 설명하기 힘들다. 먼저 원래 회의자와 후기 회의자의 편방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자.

『玉篇』52見部에서 :“寬, 莫狄切. 索也. 寬, 同上, 俗(寬의 자음은 莫狄 반절이다. 찾다는 뜻이다. 寬는 위와 같은 글자이며, 속자이다).”라고 하였다. 寬은 爪와 見으로 구성된 회의자임을 알 수 있다. 손(발톱)과 눈으로 찾다라는 회의 방식을 취한 회의자이다. 寬과 覓의 이체관계에 대하여는 唐代 字樣著作 가운데 발견된다. 『正名要錄』에서 :“歸飯 , 蘇甦.....罷甬...覓覓...變飯...蠶蠶...右正行者正體, 脚注訛俗(歸飯 , 蘇甦.....罷甬...覓覓...變飯...蠶蠶(우측에 있는 각 한 쌍의 글자에서)본문 행에 있는 자형은 정체이고, 각주에 있는 자형은 틀리거나 속된 자형이다)”라고 하였고, 『干祿字書』에서 :“覓覓, 上俗下正(覓覓에서 위의 자형은 속자이고, 아래 자형은 정자이다)”라고 하였다. 『俗書證誤』에서 :“寬, 從爪, 從不, 非(寬은 爪를 구성요소로 하는데, 不로 구성되어 있는 자형은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고, 『字彙·見部』에서 :“寬, 求也, 尋也, 索也. ○從爪, 俗作覓, 非.(寬은 구하다·찾다는 뜻이다. ○爪를 의미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속자에서 寬로 쓰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위의 『正名要錄』의 이 부류에 속하는 정자와 이체자의 관계는 대부분 小篆에서 해서화된 자형과 후기 회의자의 관계이다. 따라서 寬을 覓자의 爪가 不로 바뀐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不+見=寬’으로 인식해야 한다. 즉 ‘보이지 않으므로 찾는다’라는 방식을 채택한 후기 회의자이다.

②國→国 : 守國寺→守国寺(『東』·2·4·A).

段玉裁『說文解字注』口部에서 :“國, 邦也.從口從或(國은 ‘나라’라는 뜻이다. 口와 或으로 이루어진 회의자이다).”라고 하였고, 『說文解字注』戈部에서 :“或, 邦也. 從口, 戈以守其一. 一, 地也. 域, 或從土(或은 ‘나라’라는 뜻이다. 口과 戈(창)으로 一을 지키고 있는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一은

도 부분에는 ‘南山’으로 되어 있다. ‘木覓山’은 남산의 옛 이름임을 알 수 있다. ‘寬’자는 ‘覓’의 이체자형으로 중국 六朝시기에 만들어진 후기 회의자이다.

땅을 가리킨다. 域은 或자의 흑체자로 土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즉 國자는 □(나라를 둘러싼 영토)과 或(나라, 영역)으로 이루어진 회의자이다. 『東輿圖』에 표기된 囯자는 □(나라를 둘러싼 영토)과 王(왕)으로 이루어진 후기회의자이다.

③ 鼓→𪔐 : 鼓岩→𪔐岩(『東』·2·4·C).

段玉裁『說文解字注』鼓部에서 :“鼓, 郭也.....從壺, 支象其手擊之也.....𪔐, 籀文鼓, 從古聲.(鼓는 (가운데가 비어있는)둘레를 가죽으로 씌운 악기이다. 壺을 구성요소로 하며 支는 손으로 그것(북)을 치는 것을 본뜬 것으로 회의자이다. 𪔐 는 籀文 鼓자이며, 성부가 古聲으로 구성되었다.”라고 하였다. 壺(북)와 支(손으로 치다)로 구성된 회의자가, 壺(북)과 皮(가죽)으로 구성된 회의자로 바뀐 것이다. 북의 구성 재질을 강조한 후기회의자로 판단된다.

3.3.2 통용되는 편방으로 교체된 이체자

3.3.2.1 形旁{의미부·형부}를 교체한 것

① 食→舍 : ○館→𨙵 : 慕華館→慕華𨙵(『東』·2·4·A), 慕華館→慕華𨙵(『大』·1·8·A), 慕華館→慕華舍館(『方』·1·8·A), 館基→𨙵基(『東』·2·4·A/『大』·1·8·A/『方』·1·8·A).

② 糸→扌(手) : ○總→摠 : 總戎行宮→摠戎行宮(『要』·2·16·14), 總→摠 : 總戎行營→摠戎行營(『青』·4·16·14). ○總→摠 : 總營→摠營(『東』·2·4·A), 總營→摠營(『大』·1·8·A), 摠營(『方』·1·8·A)²¹⁾.

21) 摠摠摠 등은 모두 總자의 이체자형이다. 大徐本『說文解字』糸部에서 :“總, 聚束也. 從糸忽聲. 臣鉉等曰今俗作摠非是.”라고 하였다. 段玉裁『說文解字注』糸部에서 :“總, 聚束也. 從糸忽聲.”라고 하였고, 注에서 :“俗作摠, 又譌作愬”라고 하였다. 『廣韻·上聲·一董』에서 :“總, 聚束也...摠, 上同. 忽, 俗.”라고 하였다. 唐·唐玄度『九經字樣』手部에서 :“愬, 駿上. 『說文』作總, 經典相承通用.”라고 하여, 『說文』에서는 總으로 쓰지만, 경전에서는 널리 전승한 자형 愬를 통용한다고 하였다. 즉 總자의 이체자형으로 總·摠·摠·愬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水→氵(彡) : 游→遊 : 仙游山→仙遊山(『東』·2·4·C), 仙游津→仙遊津(『要』·2·16·14)²²⁾.

④阝(阜)→阡 : 院→院 : 弘濟院→弘濟院(『要』·2·16·14). 陵→陵 : 五陵→五陵(『青』·4·16·14/『要』·2·16·14), 五陵局內→五陵局內(『大』·1·8·A), 貞陵→貞陵(『要』·2·16·14).

3.3.2.2 聲旁{소리부·성부}를 교체한 것

성부가 바뀐 것 가운데는 첫째, 후기 형성자처럼 다시 만든 형성자가 있고, 또 기존 A자나 그 이체자형 a를 B자의 이체자형으로 채택한 두 가지 형식이 있다.

①鐵→鐵 : 梁鐵坪→梁鐵坪(『青』·4·16·14), 梁鐵坪→梁鐵坪(『要』·2·16·14/『東』·2·4·A/『大』·1·8·A/『方』·1·8·A), 水鐵里→水鐵里(『東』·2·4·A/『大』·1·8·A/『方』·1·8·A)²³⁾.

②它→它 : 駝→駝 : 駝駱山→駝駱山(『要』·2·16·14), 駝駱山→駝駱山(『東』·2·4·B), 駝駱山→駝駱山(『大』·1·8·B), 駝駱山→駝駱山(『方』·1·8·B).

駝자는 『說文』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玉篇·馬部』에서 :“駝, 大何切. 駝駝. 駝, 同上, 俗.”라고 하였다. 『廣韻·平聲·七歌』에서 :“駝, 駝駝.....

모두 의미부 糸가 手로 변한 것이다. 糸와 手는 단독으로는 의미상 관련이 없다. 그러나 纒의 본의가 聚束(모아서 묶다)이므로 묶는 도구를 강조하여 糸를 편방으로 쓸 수 있고, 또 묶는 동작을 강조하여 手를 쓸 수도 있다. 즉 이런 경우에는 糸와 手를 교체하여 쓸 수 있다.

22) 段玉裁『說文解字注』扌部에서 :“游, 旌旗之流也. 從扌浮聲. 逄, 古文游”라고 하였고, 逄, 古文游 注에서 :“逄, 古文游. 從彡者, 流行之義也. 從彡者, 浮之省聲也. 俗作遊者, 合二篆爲一字.”라고 하였다. 본자는 游자이며, 遊자는 游와 逄 의 篆體를 합하여 하나로 만든 자형이라는 것이다. 『玉篇·彡部』에서 :“遊, 余周切. 遊遊也. 與游同. 逄, 古文”라고 하였다. 또 『廣韻·平聲·十八尤』에서 :“游, 浮也.....遊, 上同. 逄, 古文.”라고 하였다. 현재 游와 遊는 각기 자의가 있고, 游가 의미범주가 넓다.

23) 萬→万·鐵→鐵·壇→坩 등은 잘 사용되지 않는 글자 A나 그 이체자형 a를 B의 이체자형으로 채택한 경우이다. 鐵은 원래 紕의 이체자이인 鐵을 자신의 이체자로 삼은 것이다.

駝, 俗.”라고 하였고, 『龍龕手鑑·馬部』에서 :“駝, 正. 駝, 今.”라고 하였고, 『字彙·馬部』에서 :“駝. 唐何切, 音陀.....駝, 同上.”라고 하였다. 종합하면 駝가 정자이고, 駝는 이체자임을 알 수 있다.

它편방과 也편방은 소전 자형이 근사하여 隸變 이후 두 자형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玉篇·虫部』에서 :“蛇, 正作蛇”라고 하였고, 『九經字樣·虫部』에서 :“蛇, 今俗作蛇”라고 하였다. 它와 也는 소전 자형이 비슷하여 隸變 과정에서 혼용되어, 隸書에서는 거의 같이 쓰이게 되었다. 그리고 또 也로 이루어진 편방은 대체로 拖施施같은 자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牠와 牠 같은 이체자조가 생겨난 것이다. 『字彙·牛部』에서 :“牠, 徒河切, 音陀. 牛無角○又與犄同. 牠, 同上”라고 하였다. 『重訂直音篇·牛部』에서 :“牠, 音陀. 牛無角. 牠牠, 同上”라고 하였고, 『重訂直音篇·角部』에서 :“觡, 音陀. 牛無角. 觡, 音陀. 角也. 觡, 同上.”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당시 它·也·佗 세 편방이 흔히 혼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세 편방은 먼저 소전자형이 근사한 它와 也가 예변 과정에서 먼저 혼용되고, 다시 拖施施같은 조합에서 흔히 보이는 佗편방으로 구성된 이체자형이 탄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駝와 駝의 이체관계 역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혼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③ 蘆→芦 : 蘆原驛→芦原面(『青』·4·16·14), 蘆原驛→芦原面(『要』·2·16·14), 蘆原驛→芦原駟(『東』·2·4·B), 蘆原驛→芦原駟(『大』·1·8·B), 蘆原驛→蘆原駟(『方』·1·8·B).

대서본 『說文解字』艸部에서 :“蘆, 蘆菹也. 一曰薺根. 從艸盧聲”라고 하였으며, 『唐韻』의 자음은 ‘落乎切’로 표기되어 있다. 『玉篇』艸部에서 :“蘆, 力胡切. 葦之未秀者爲蘆.”라고 하였고, 동일 艸部에 또 :“芦, 胡古切”라고 하여 자음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集韻·上聲·十姥』에서 :“芣芦, 艸名. 『說文』地黃也...或作芦”라고 하여 芣의 이체자로 설명하고 있다. 『字彙·艸部』에서 :“蘆, 龍都切, 音盧. 『說文』蘆菹也.....○”라고 하였고, 동일 艸部에서 :“芦, 與芣同. 地黃也. ○俗以芦爲蘆.”라고 하였다.

芦자는 원래 芣의 이체자이나, 蘆의 이체자로도 사용되어 이중 배역을 담당하고 있다. 蘆편방으로 구성된 많은 한자의 이체자형은 대부분 戶로 변이

되었다. 즉 鱸·爐·廬의 이체자가 각각 鮪·爐·廬인 것이 이를 증명한다. 구조가 복잡한 蘆자 대신에 대체 가능한 성부인 戶로 구성된 (뿌의 이체자인)芦를 이체자형으로 쓰게 된 것이다. 廬와 戶는 자음상 환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복잡한 구조의 한자인 경우, 기존의 다른 글자 또는 다른 글자의 이체자 가운데 통용할 수 있는 글자를 빌어서 이체자형으로 삼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이체자형으로 채택되는 글자는 주로 잘 쓰이지 않는 편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④ 壇→坌 : 南壇→南坌(『大』·1·7·C).

『大東輿地圖』1첩 7면에는 정자형인 ‘壇’ 대신 ‘坌’이 판각되어 있다. ‘坌’은 독자적인 음義를 지닌 개별자이다. 여기서는 ‘壇’의 이체자로 쓰였으므로,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는 聲符를 바꾼 유형으로 간주해야 한다. 앞에서 열거한 萬→万·蠶→蚕처럼 편벽되어 잘 사용하지 않은 자형 구성이 간략한 글자를 이체자형으로 삼은 것이다.

⑤ 鷗→鴟 : 鴨鷗亭→押鴟亭(『青』·4·16·14), 鴨鷗亭→狎鴟亭(『大』·1·8·D).

段玉裁『說文解字注』鳥部에서 :“鷗, 水鴟也. 從鳥區聲(鷗는 갈매기란 뜻이다. 鳥를 의미부로 區를 소리부로 구성된 형성자이다).”라고 하였다. 鷗의 이체자 鴟는 성부 區가 동음인 丘로 바뀐 것이다. 성부가 대체된 이체자형이다.

⑥ 廟→廟 : 東廟→東廟(『青』·4·16·14/『東』·2·4·B/『大』·1·8·B), 南廟→南廟(『青』·4·16·14/『東』·2·4·C/『大』·1·8·C)²⁴⁾.

24) 『大東輿地圖』1첩7면에서는 ‘東廟’로 판각되어 있다. 아마도 사대문 밖의 인문정보 표기할 공간이 충분하였기에 정자로 판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大東輿地圖』의 1첩8면은 오로지 사대문 밖의 정보만 표기하고 있으므로, 각양 각색의 많은 정보를 표기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여유 공간이 부족하다. 『東輿圖』2첩3열은 주로 사대문 안을 묘사하고 있고, 2첩4열은 사대문 밖에 있는 정보만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사대문 바깥쪽 인접 지역 표기에는 2첩 3열이 확실히 공간이 여유롭다. 이런 이유로 『東輿圖』2첩4열에는 ‘東廟’로 판각되어 있지만, 2첩 3열에는 ‘東廟’로 판각되어 있다. 또 『大東輿地圖』1첩 7면과 『東輿圖』2첩 3열에는 ‘南廟’가 ‘南廟’로 판각되

段玉裁『說文解字注』广部에서 :“廟, 尊先祖兒也. 從广朝聲. 廟, 古文.”라고 하였다. 聲符인 朝를 苗로 바꾼 것이다. 지도에 나타난 廟는 성부가 苗의 생략된 형태이다.

⑦廣→𡩇 : 廣興倉→𡩇興倉(『青』·4·16·14).

廣의 이체자형인 𡩇은 고지도 도처에서 발견된다. 廣津이 𡩇津(『青』·4·16·13)으로 표기되어 있고, 조선지도(奎16030)의 경기부분에서 廣津을 𡩇津으로 표기하고 있다.

『說文』卷九广部에서 :“廣, 殿之大屋也. 從广黃聲(廣,은 사방에 벽이 없는 큰 집이라는 뜻이다. 广을 의미부로 黃을 소리부로 구성된 형성자이다.)”라고 하였다. 또 段玉裁『說文解字注』卷十三黃部에서 :“黃, 地之色也. 從田從芑, 芑亦聲. 芑, 古文光(黃은 땅을 대표하는 색이다. 田과 芑으로 이루어진 회의자이다. 芑은 또 성부이기도 하며 이 경우는 형성자이다. 芑은 고문 光자이다)”라고 하였다. 또 『說文』卷十二火部에서 :“光, 明也. 火在人上, 光明意也. 𡩇, 古文. 芑, 古文(光은 밝다는 뜻이다. 火가 人위에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서 광명의 뜻을 나타낸다. 𡩇은 古文이며, 芑은 고문이다.)”라고 하였다. 인용한 자료를 종합하면 廣의 소리부인 黃은 고문 光자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지도에 나타난 廣자의 이체자는 𡩇·𡩇형태를 지닌다. 성부인 黃이 𡩇으로 교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𡩇은 어디에서 연유한 자형인가? 먼저 黃의 주요 구성요소인 芑 즉 고문 光자를 떠올릴 수 있다. 『玉叢』에 𡩇이 기재되어 있고, 『玉彙』에 𡩇이 기재되어 있다²⁵⁾. 光자와 같은 자형은 흔히 위쪽 양 옆의 점(丶)은 一처럼 한 획으로 변이된다. 따라서 위 부분이 一로 바뀌고 아래 부분의 儿이 八로 바뀌면 光→𡩇→𡩇의 순서로 변이된다. 종합하면 지도에 나타난 𡩇·𡩇은 𡩇자의 변이된 형태로 廣자의 이체자형이다²⁶⁾.

어 있다.

25) 『한국한자이체자조사』(국립국어연구원편, 2002년 12월)93쪽 참고바람. 또 『禪門綱要』(『漢字略體調查研究』25쪽)에도 𡩇자가 수록되어 있다.

⑧ 易→~~場~~ : ○場→~~場~~(場) : 舊馬場內→旧馬~~場~~內(『東』·2·4·D).

『干祿字書·平聲』에서 : “~~場~~場, 上音長, 中音傷, 下音亦(場場場에서 위 글자의 음은 長이고, 가운데 글자의 음은 傷이고, 아래 글자의 음은 亦이다).”라고 하였고, 『俗書刊誤·平聲』에서 : “場, 直良切. 作場非. 若場從易則音亦, 與此異(場은 자음이 直良반절이다. 場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場이 易으로 구성되었다면 자음은 亦이며, 이 글자(場자)와는 다르다).”라고 하였다. 또 『字彙·土部』에서 : “場, 同場(場은 場과 같다)”라고 하였다. 종합하면 場자는 원래 음의가 場과는 다른 개별자이다. 그러나 후에 場의 이체자형으로도 쓰이게 되었다. 이 場자는 지금 홍콩에서 場자의 표준 자형으로 쓰이고 있다.

3.3.3 비슷한 편방이 혼용된 이체자

이 부류는 자형이 비슷한 편방끼리 서로 혼용되어 오류에 이르게 된 것이다.

① 水(水)→心(卩) : ○泰→~~泰~~ : 利泰院→利~~泰~~院(『東』·2·4·C). ○瀑→~~瀑~~ : 香林瀑→香林~~瀑~~(『東』·2·4·B/『方』·1·8·B), 香林瀑→香林~~瀑~~(『大』·1·8·B).

수가 아래에 둘러싸인 곳에 위치하는 경우 자형이 水로 바뀌고, 心자는 아래에 둘러싸인 곳에 위치하면 卩으로 자형이 바뀐다. 예로 들면 恭泰暴 水를, 慕는 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비슷한 구조를 가진 한자는 상호간에 아래쪽 편방 水과 卩을 쉽게 혼용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② 大→火 : ○美→永~~美~~ : 永美洞→永 ~~美~~洞(『大』·1·8·B), 永美洞→永~~美~~洞(『方』·1·8·B).

『說文解字』羊部에서 : “美, 甘也. 從羊大(美는 맛이 달다{있다}는 뜻이

26) 庶자에 대해 대서본 『說文解字』广部에서 : “庶, 屋下衆也, 從广炎. 炎, 古文光字(庶는 집 아래에 광채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广과 炎으로 구성된 회의자이다. 炎은 古文 光자이다)”라고 하였다. 『宋元以來俗字譜』에서 「京本通俗小說」을 인용하여 庶의 이체자로 庶을 제시하고 있다. 즉 广+光=广+~~光~~와 같은 식이 성립된다. 庶자형은 또 「通俗小說」에서 庶의 이체자로도 쓰였다.

다. 羊과 大로 구성된 회의자이다.”라고 하였다. 『五經文字』羊部에서 :“美, 從羊從大, 從犬從火者, 訛(美는 羊과 大로 구성된 회의자이다. 犬이나 火로 구성된 것은 틀린 것이다.)”라고 하였다. 大와 火의 자형이 비슷하여 혼용되고, 大에 서사 습관으로 點을 찍으면 犬자형으로 변이됨을 지적한 것이다.

③ 阜(阜)→冂 : 陵→陵 : 貞陵→貞陵(『要』·2·16·14), 五陵→五陵(『青』·4·16·14), 五陵→五陵(『方』·1·8·A), 五陵局內→五陵局內(『大』·1·8·A). 陀→陀 : 彌陀寺→彌陀寺(『大』·1·8·B). 隅→隅 : 石隅→石隅(『大』·1·8·C).

3.3.4 편방을 혼합한 이체자

이 부류는 비슷한 자형 구조에 영향을 받아서 두 자형을 혼합하여 하나의 편방을 만든 것이다.

① 壇→壇 : 北壇→北壇(『東』·2·4·B), 南壇→南壇(『東』·2·4·C).

『東輿圖』2첩 4열에 ‘北壇’이 ‘北壇’으로 판각되어 있다. 또 같은 2첩 4열에 ‘南壇’이 ‘南壇’으로 판각되어 있다. 또 『大東輿地圖』1첩 7면에는 ‘南壇’이 ‘南坌’으로 판각되어 있는데, ‘坌’은 독자적인 音義를 지닌 글자이며, 여기서는 ‘壇’의 이체자로 쓰였다. 즉 이체자형 가운데 聲符를 바꾼 유형이라고 판단된다. 종합하면 ‘壇’은 ‘壇’의 訛變이며, ‘壇’은 다시 ‘坌’과 ‘壇’이 뒤섞여 있는 이체자형으로 추정된다.

『大東輿地圖』1첩 7면에는 정자형인 ‘壇’ 대신 ‘坌’이 판각되어 있다. ‘坌’은 독자적인 音義를 지닌 글자이다. 여기서는 ‘壇’의 이체자로 쓰였는데, A글자가 B자의 이체자형으로 쓰인 경우이다.

② 祭→祭 : 祭→祭 : 祭基峴→祭基峴(『東』·2·4·B/『大』·1·8·B/『方』·1·8·B), 英登浦→英登浦(『東』·2·4·C), 英登浦→英登浦(『大』·1·8·C), 英登浦→英登浦(『方』·1·8·C).

祭자의 위 부분은 祭과 祭이 혼합된 祭 편방으로 변이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3.5 편방을 부호화한 이체자

3.3.5.1 형방을 간략하게 부호화한 이체자

① 門→門：碑閣→碑閣(『大』·1·8·A), 幸州間路→幸州間路(『大』·1·8·A).

형방인 門이 초서체 門을 채택하여 간화를 추구한 이체자형이다.

② 阜(阜)→阝：○院→院：弘濟院→弘濟院(『大』·1·8·A), 內院庵→內院庵(『大』·1·8·B/方』·1·8·B), 利泰院→利泰院(『大』·1·8·C). ○陵→陵：貞陵→貞陵(『大』·1·8·B), 懿陵→懿陵(『大』·1·8·B).

형방인 阜(阜)의 초서형인 阝를 채택하여 부호화를 추구한 이체자형이다.

3.3.5.2 聲旁을 간략하게 부호화한 이체자

① 爾→尔：○彌→弥：彌陀寺→弥陀寺(『東』·2·4·B), 彌陀寺→弥陀寺(『大』·1·8·B), 彌陀寺→弥陀寺(方』·1·8·B).

爾의 초서형인 爾을 채택하여 부호화를 추구한 이체자형이다. 彌는 일반적으로 弥의 자형으로 간화된다. 지금 중국 彌의 간화자형이 弥이다. 弥는 성방이 爾→爾→尔의 과정을 거쳐 변이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婁→婁：○樓→樓：挹清樓→挹清樓(『東』·2·4·C/『大』·1·8·C).

복잡한 성방의 일부분을 간략하게 米라는 부호로 대체한 것이다.

3.3.5.3 혼합된 편방을 간략하게 부호화한 이체자

이 부류는 형방과 성방이 부분적으로 혼합된 편방을 부호화한 것이다.

① 鹽倉→盐倉：鹽倉→盐倉(『青』·4·16·14), 鹽倉→盐倉(『要』·2·16·14), 鹽倉項→盐倉項(『大』·1·8·A), 鹽倉項→盐倉

項(『東』·2·4·A/『方』·1·8·A).

段玉裁『說文解字注』鹽部에서 :“鹽, 鹵也. 天生曰鹵, 人生曰鹽. 從鹵監聲. 古者夙沙初作鸞海鹽(鹽은 소금이라는 뜻이다. 자연적으로 생성된 {만들어진} 것을 鹵라하고, 사람이 (끓이는 등)인위적으로 생성시킨 것을 鹽이라한다. 鹵를 형방으로 監을 성방으로 이루어진 형성자이다. 예전에 夙沙가 처음으로 바닷물을 달여서 소금을 만들었다.”라고 하였다. 鹽은 형방인 鹵와 성방인 監으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이체자형이 부호화된 위 부분은 形旁 鹵와 성방인 監의 위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혼합된 편방이 坩·坩 등으로 간략하게 부호화된 것이다.

3.3.6 편방을 혼용한 이체자

A편방을 B편방으로 잘못 쓰는 경우로, 편방 상호간 음의의 관련이 없고 오로지 자형이 근사하여 혼용된 것이다.

① ㄱ → 니사 : 懷 → 懷懷 : 懷墓 → 懷墓(『東』·2·4·B), 懷墓 → 懷墓(『大』·1·8·B)

② 方 → 才 : 於 → 於 : 夫於峙 → 夫於峙(『東』·2·4·D/『大』·1·8·D).

3.4 部件이 변이된 이체자

이 부류는 한자 자형 구성 요소 가운데 일부분이 생략되거나 변이가 발생하여 생성된 이체자형이다.

3.4.1 부건이 생략된 것

① 堂 → 堂 : 堂山里 → 堂山里(『東』·2·4·C).

大徐本『說文解字』土部에서 :“堂, 殿也. 從土尙聲. 堂, 古文堂(堂은 집이라는 뜻이다. 토를 의미부로 尙을 소리부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堂자형은 고문 堂자이다).”라고 하였다. 段玉裁의 『說文解字注』에서 堂자에 대해 :

“蓋從尙省(무릇 소리부인)尙이 생략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였다. 종합하면 坐은 堂의 소리부 일부가 생략된 자형이다. 일반 서사재료에 비해 필사나 판각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도에서 이체자형 가운데 간략한 자형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②懷→懷 : 懷墓→懷墓(『方』·1·8·B), 懷墓→懷墓(『東』·2·4·B), 懷墓→懷墓(『大』·1·8·B).

『干祿字書·平聲』에서 : “懷懷, 上通下正(懷懷, 위의 자형은 통자체이고, 아래 자형은 정자체이다).”라고 하였다. 이체자는 성부 懷에서 ㄱ이 생략되고, 아랫부분이衣로 바뀌고 위에 ㄱ가 十으로 바뀐 자형을 하고 있다.

3.4.2 부건이 혼용된 것

A부건을 B부건으로, A와 B부건을 C로 잘못 쓴 경우로, 부건 사이에 音義상 관련은 없고 오로지 자형이 근사하여 혼용된 것이다.

3.4.2.1 A부건을 B부건으로 혼용한 것

①方→才 : 游→游 : 仙游峯→仙游峯(『青』·4·16·14/『大』·1·8·C), 游→游 : 仙游津→仙游津(『要』·2·16·14), 仙游山→仙游山(『東』·2·4·C).

②父→父 : 陵→陵 : 五陵→五陵(『要』·2·16·14), 五陵局內→五陵局內(『大』·1·8·A), 貞陵→貞陵(『東』·2·4·B).

③廿→卅 : 漢→漢 : 北漢山城→北漢山城(『青』·4·16·14), 北漢山城→北漢山城(『要』·2·16·14/『大』·1·8·B), 北漢山城→北漢山城(『方』·1·8·B), 漢江鎮→漢江鎮(『東』·2·4·D/『大』·1·8·D), 漢江鎮→漢江鎮(『方』·1·8·D), 漢北門→漢北門(『東』·2·4·A/『大』·1·8·A/『方』·1·8·A),

④匕→七 : 尼→尼 : 尼舍→尼舍(『東』·2·4·B/『東』·2·4·D/).

⑤口→△ : ○遠→遠 : 望遠亭→望遠亭(『東』·2·4·C/『方』·1·8·C), 望遠亭→望遠亭(『大』·1·8·C).

⑥同→月 : ○興→興 : 興仁門→興仁門(『要』·2·16·14), 新興寺→新興寺(『方』·1·8·B), 始興間路→始興間路(『大』·1·8·C/『方』·1·8·C), 始興路→始興路(『大』·1·8·C/『方』·1·8·C), 廣興倉→廣興倉(『要』·2·16·14), 廣興倉→廣興倉(『大』·1·8·C).

⑦臣→臣 : ○臥→臥 : 臥牛山→臥牛山(『青』·4·16·14/『要』·2·16·14/『東』·2·4·C/『大』·1·8·C/『方』·1·8·C). ○熙→熙 : 熙熙門→熙熙門(『大』·1·8·D). ○藏→藏 : 天藏山→天藏山(『大』·1·8·B), 天藏山→天藏山(『東』·2·4·B/『方』·1·8·B). ○監→監 : 軍資監別庫→軍資監別庫(『大』·1·8·C/『方』·1·8·C), 軍資監別庫→軍資監別庫(『東』·2·4·C). ○賢→賢 : 普賢峯→普賢峰(『東』·2·4·B/『大』·1·8·B/『方』·1·8·B).

⑧力→山 : ○鶴→鶴 : 放鶴串→放鶴串(『青』·4·16·14), 放鶴串→放鶴串(『要』·2·16·14/『方』·1·8·C), 放鶴串→放鶴串(『東』·2·4·C), 放鶴串→放鶴串(『大』·1·8·C).

⑨月→夕 : ○望→望 : 望遠亭→望遠亭(『大』·1·8·C).

⑩人→卜 : ○臥→臥 : 臥牛山→臥牛山(『青』·4·16·14/『要』·2·16·14/『東』·2·4·C/『大』·1·8·C/『方』·1·8·C).

⑪円→月 : ○青→青 : 青坡駟→青坡駟(『東』·2·4·C), 青岩寺→青岩寺(『大』·1·8·B/『方』·1·8·B).

⑫<<→川 : ○踰→踰 : 狄踰峴→狄踰峴(『青』·4·16·14/『要』·2·16·14), 狄踰峴→狄踰峴(『東』·2·4·B/『大』·1·8·B/『方』·1·8·B), 水踰峴→水踰峴(『青』·4·16·14/『要』·2·16·14), 水踰峴→水踰峴(『東』·2·4·B/『大』·1·8·B/『方』·1·8·B).

⑬旦→且 : ○壇→壇 : 北壇→北壇(『大』·1·8·B/『方』·1·8·B), 先農壇→先農壇(『大』·1·8·B/『方』·1·8·B), 南壇→南壇(『方』·1·8·C).

⑭ 刀→刀：別→別：軍資監別庫→軍資監別庫(『東』·2·4·C).

⑮ 匕→十：眞→眞：楊花鎮→楊花鎮(『東』·2·4·C/『要』·2·16·14/『方』·1·8·C)，楊花鎮→楊花鎮(『大』·1·8·C)，楊花渡鎮→楊花渡鎮(『青』·4·16·14).

3.4.2.2 A와 B부건을 C로 쓴 것

이 부류는 A와 B부건을 C로 틀리게 쓴 것을 가리킨다.

① 天→父：橋→橋：細橋(里)→細橋(里)(『東』·2·4·A/『大』·1·8·A)，橋谷→橋谷(『東』·2·4·B/『大』·1·8·B)，舟橋→舟橋(『東』·2·4·C/『大』·1·8·C)，永渡橋→永渡橋(『東』·2·4·D/『大』·1·8·D)，濟礮橋→濟礮橋(『東』·2·4·D/『大』·1·8·D)。○濟→濟：弘濟院→弘濟院(『要』·2·16·14)，弘濟院→弘濟院(『東』·2·4·A)，弘濟院→弘濟院(『大』·1·8·A)，濟礮橋→濟礮橋(『東』·2·4·D/『大』·1·8·D)。

3.4.3 부건이 부호화된 것

3.4.3.1 A부건이 B부건으로 부호화된 것

① 炊→廿廿：營→營：圻營→圻營(『要』·2·16·14/『大』·1·8·A)，總營→總營(『大』·1·8·A)，總戎行營→總戎行營(『青』·4·16·14)，總營→總營(『方』·1·8·A)。

營자를 營으로 간화하였는데, 營자형은 1936년 國民黨 정부가 발행한『第一批簡体字表』3쪽 「ㄥ韻」에 실려 있다.

② 卅→卅々：敬→敬：孝敬峯→孝敬峯(『方』·1·8·A)，孝敬峯→孝敬峯(『大』·1·8·A)。○灘項→灘項(『東』·2·4·C)，灘項→灘項(『大』·1·8·C/『方』·1·8·C)。○尾老灘→尾老灘(『大』·1·8·C/『方』·1·8·C)，尾老灘→尾老灘(『東』·2·4·C)。

③ 爻→夕：礮→礮：綠礮峴→綠礮峴(『東』·2·4·A/『方』·1·8·

· A), 綠礬峴→**綠礬峴**(『大』·1·8·A), 濟礬橋→**濟礬橋**(『東』·2·4·D/『大』·1·8·D), 濟礬橋→**濟礬橋**(『方』·1·8·D).

『大東方輿全圖』의 1첩 7面에는 ‘**綠礬峴**’으로 판각되어 있고, 『輿地圖』(규장각 고지도 古4709-68)의 都城부분에서 ‘綠礬’이 ‘**綠礬**’으로 판각되어 있다.

④ 四→田 : ○甌→**甌** : 甌山里→**甌**山里(『東』·2·4·A/『方』·1·8·A), 甌山里→**甌**山里(『大』·1·8·A). ○僧伽寺→**僧**伽寺(『要』·2·16·14/『東』·2·4·B/『大』·1·8·B/『方』·1·8·B). ○黑→黑 : 黑石里→**黑**石里(『東』·2·4·C/『大』·1·8·C/『方』·1·8·C). ○黔→**黔** : 黔岩站→**黔**岩站(『東』·2·4·A/『大』·1·8·A/『方』·1·8·A), 黔岩站→**黔**岩店(『青』·4·16·14).

⑤ 冫→冫 : ○裝→**裝** : 雨裝峴→**兩**裝峴(『東』·2·4·B/『大』·1·8·B/『方』·1·8·B).

⑥ 双→、 : ○桑→**桑** : 桑林→**桑**林(『東』·2·4·D).

⑦ 𠂔→一 : ○駟→**駟** : 迎曙駟→**延**曙駟(『東』·2·4·A), 迎曙駟→**迎**曙駟(『大』·1·8·A), 蘆原駟→**荊**原駟(『東』·2·4·B), 蘆原駟→**荊**原駟(『大』·1·8·B), 青坡駟→**青**坡駟(『東』·2·4·D/『大』·1·8·D). ○驛→**驛** : 迎曙驛→**迎**曙驛(『青』·4·16·14/『要』·2·16·14). ○鷗→**鷗** : 鴨鷗亭→**狎**鷗亭(『東』·2·4·D), 鴨鷗亭→**狎**鷗亭(『方』·1·8·D).

⑧ 回→回 : ○壇→**壇** : 先農壇→**先**農壇(『東』·2·4·B).

⑨ 止→之 : ○踰→**踰** : 狄踰峴→**狄**踰峴(『青』·4·16·14/『要』·2·16·14), 水踰峴→**水**踰峴(『青』·4·16·14/『要』·2·16·14).

⑩ 疋→疋 : ○定→**定** : 安定寺→**安**定寺(『東』·2·4·D)

⑪ 尗→主 : ○陵→**陵** : 五陵→**五**陵(『青』·4·16·14), 貞陵→**貞**陵(『青』·4·16·14), 懿陵→**懿**陵(『青』·4·16·14).

⑫ 壹→主 : ○鑄→**鑄** : 鑄成里→**鑄**成里(『東』·2·4·D/『大』·1·8

· D), 鑄成里→鑄城里(『方』·1·8·D).

⑬ 刀→ノ : ◦昭→昭 : 懿昭→懿昭(東』·2·4·C)

3.4.3.2 A와 B부건이 C로 부호화된 것

① 纟 双→彡 : ◦樂→樂 : 安樂峴→安樂峴(『東』·2·4·B). ◦藥→藥 : 藥師寺→藥師寺(『東』·2·4·B), 藥師寺→藥師寺(『大』·1·8·B). ◦桑→桑 : 桑林→桑林(『大』·1·8·D).

이처럼 중첩된 부건을 彡로 부호화하여 표기하는 것은 한국 한적 자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다. 모두 필사와 판각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潺→潺·變→變·跳→跳 등이 있는데, 辵을 辵, 弄을 弄, 兆(兆)를 兆로 각각 纟·彡·彡를 彡로 부호화 한 것이다²⁷⁾. 『宋元以來俗字譜·車部』에서 「目連記彈詞」를 인용하여 轟의 이체자로 轟를 제시하고 있다. 아래 부분에 중첩된 轉부분을 彡로 대체하고 있다. 그런데 1956년 중국에서 공포한 『漢字簡化方案』의 「第二表」285개 간화한자 가운데 轟를 수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이체자형의 간화방법과 동류라고 판단된다. 轟의 아래부분 彡을 彡로 대체한 것이다. 현재 중국 간화자 자형은 轟인데, 轟에서 위 부분의 車를 초서체에 의거하여 간략하게 만든 자형이다.

3.5 筆劃에 변화가 발생한 이체자

3.5.1 필획이 증가된 것

① 土→土(土) : 土亭→土亭(『青』·4·16·14/東』·2·4·C).

위처럼 자형 구조가 지나치게 간단한 경우 점을 부가하여 균형미를 추구한

27) 이처럼 纟·彡·彡 등처럼 중첩된 부분을 일괄적으로 彡로 부호화하였다. 그 가운데 兆는 兆의 儿부분이 彡로 변이된 것으로 판단하기 쉬우나, 실상은 兆 양쪽의 중첩된 彡부분이 彡로 부호화된 자형임에 틀림이 없다고 사료된다. 자세한 것은 李景遠 「우리나라 漢籍 자료에 나타난 異體字의 樣相과 偏旁 變異 規律에 대한 연구」 (中國語文論譯叢刊第27輯, 107-108쪽, 117쪽)를 참고 바람.

이체자형도 있다.

3.5.2 필획이 감소된 것

3.5.2.1 점이 생략된 것

① 梁→**𦉰** : ○露梁→**露𦉰**(『要』·2·16·14), 露梁鎮行宮→**露𦉰鎮**
行宮(『東』·2·4·C/『大』·1·8·C/『方』·1·8·C). ○梁鐵坪→**𦉰**
鐵坪(『青』·4·16·14/『要』·2·16·14/『東』·2·4·A/『大』·1·8
·A/『方』·1·8·A)

② 露→**露** : ○露梁→**露𦉰**(『要』·2·16·14).

③ 浦→**浦** : ○麻浦→**麻浦**(『大』·1·8·C/『方』·1·8·C). ○豆毛浦
→**豆毛浦**(『大』·1·8·D/『方』·1·8·D). ○中梁浦→**中梁浦**(『大』·1
·8·D/『方』·1·8·D).

④ 禧→**禧** : ○古延禧宮→古延**禧**宮(『東』·2·4·A), 古延禧宮→古
延禧宮(『大』·1·8·A/『方』·1·8·A). ○宣禧墓→宣**禧**墓(『東』·2
·4·C), 宣禧墓→宣**禧**墓(『大』·1·8·C).

⑤ 者→**者** : ○署→**署** : 造紙署→造紙**署**(『東』·2·4·A/『大』·1·8
·A/『方』·1·8·A). ○西活人署→**西活人署**(『東』·2·4·C/『大』·1
·8·C), 西活人署→西活人**署**(『方』·1·8·C). ○瓦署→**瓦署**(『要』·2
·16·14/『東』·2·4·C/『大』·1·8·C/『方』·1·8·C). ○典牲署
→**典牲署**(『東』·2·4·C/『大』·1·8·C), 典牲署→典牲**署**(『方』·1·
8·C). ○東活人署→東活人**署**(『東』·2·4·D/『大』·1·8·D/『方』·
1·8·D). ○楮子島→**楮子島**(『東』·2·4·D/『大』·1·8·D/『方』·1
·8·D).

『說文解字注』老部에서 :“者, 別事詞也. 從白𦉰 聲. 𦉰 , 古文旅字
(者是 사물을 구별하는(데 사용하는) 어휘이다. 白을 의미부로 𦉰 를 성부
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𦉰 는 고문 旅자이다).”라고 하였다. 원래 白으로
구성되어 者로 隸書化{楷書化} 되었으나, 후대 자서에서 『玉篇』처럼 點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俗書刊誤·卷二·十六者韻』에 이르러 “者, 俗無點, 非.”라고 하였다. 현재 중국간체자는 點이 생략된 자형을 표준 자형으로 삼고 있다. 點은 서사 습관상 복잡한 자형에서는 생략시키고, 간단 하여 공허한 자형에서는 덧붙여 균형미를 추구하는 가장 흔한 도구로 사용되 기도 한다.

3.5.2.2 세로획이 생략된 것

① 峴→峴 : 朴石峴→礮石峴(『靑』·4·16·14), 狄踰峴→狄踰峴(『靑』·4·16·14/『要』·2·16·14), 水踰峴→水踰峴(『靑』·4·16·14), 阿峴→阿峴(『方』·1·8·C), 堂峴→堂峴(『東』·2·4·C), 堂峴→堂峴(『方』·1·8·C).

3.5.2.3 가로획이 생략된 것

① 德→德 : ○德水川→德水川(『靑』·4·16·14/『要』·2·16·14/『東』·2·4·A/『大』·1·8·A/『方』·1·8·A).

② 田→田 : ○東籍田→東籍田(『大』·1·8·D).

이 현상은 목판본인 『大東輿地圖』에만 보인다. 이체자형일 수도 있지만, 판각할 때 떨어져 나갔거나 인쇄할 때 그 부분이 찍혀 나오지 않은 현상일 수도 있다. 나아가서는 임금의 親耕地에 대한 缺筆 避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5.2.4 빠침이 생략된 것

① 碑→碑 : ○碑峯→峯碑(『東』·2·4·A), 碑峯→碑峯(『大』·1·8·A), 碑峯→碑峯(『方』·1·8·A). ○碑閣→碑閣(『東』·2·4·A), 碑閣→碑閣(『大』·1·8·A), 碑閣→碑閣(『方』·1·8·A).

② 新→新 : ○新寺→新寺(『大』·1·8·A).

③ 師→師 : ○藥師寺→藥師寺(『大』·1·8·B), 藥師寺→藥師寺(『

方』·1·8·B)

④原→原：○蘆原駟→**芦原駟**(『東』·2·4·B), 蘆原駟→**芦原駟**(『大』·1·8·B), 蘆原面→**芦原面**(『青』·4·16·14).

⑤矣→矣：○汝矣島→**汝矣島**(『要』·2·16·14/『東』·2·4·C/『方』·1·8·C).

3.5.3 필획을 연이어 쓴 것

이 부류의 이체자는 원래 분리되어 있던 필획을 연이어 쓴 경우이다.

①卅→卅：○**蓮**→**蓮**：白**蓮**山→白**蓮**山(『青』·4·16·14/『東』·2·4·A/『大』·1·8·A/『方』·1·8·A). ○**草**→草：中**草**→中**草**(『東』·2·4·A/『大』·1·8·A), **蔓草**川→蔓**草**川(『大』·1·8·C). ○**華**→華：慕**華**館(『東』·2·4·A/『大』·1·8·A), 江**華**路→江**華**路(『東』·2·4·C/『大』·1·8·C). ○**藏**→**藏**：天**藏**山→天**藏**山(『大』·1·8·B). ○**麓**→**麓**：蘆原**駟**→**芦原駟**(『東』·2·4·B). ○**墓**→墓：宣禧**墓**→宣禧**墓**(『大』·1·8·C), 懿昭**墓**→懿昭**墓**(『大』·1·8·C), 孝昌**墓**→孝昌**墓**(『大』·1·8·C). ○**幕**→幕：瓮**幕**→瓮**幕**(『大』·1·8·C). ○**花**→花：楊**花**鎮→楊**花**鎮(『方』·1·8·C). ○**英**→英：**英**登浦→英**登**浦(『大』·1·8·C).

②眞→**真**：鎮→**鎮**：露梁鎮行宮→露梁**鎮**行宮(『東』·2·4·C/『大』·1·8·C/『方』·1·8·C).

③彡→**彡**：○浦→**浦**：英登浦→英**登**浦(『大』·1·8·C).

④易→**易**：○楊→**楊**：楊根路→楊**根**路(『東』·2·4·D/『大』·1·8·D/『方』·1·8·D). ○陽→**陽**：高陽間路→高**陽**間路(『東』·2·4·A/『大』·1·8·A/『方』·1·8·A), 高陽路→高**陽**路(『東』·2·4·A/『大』·1·8·A/『方』·1·8·A).

⑤亭→**亭**：○亭→**亭**：土亭→土**亭**(『青』·4·16·14/『大』·1·8·C).

3.5.4 필획의 위치가 바뀐 것

3.5.4.1 가로획에서 세로획으로 변이

①示→木 : ◦禧→禧 : 古延禧宮→古延禧宮(『大』·1·8·A), 宣禧墓→宣禧墓(『大』·1·8·C). ◦永→永 : 永美洞→永美洞(『大』·1·8·B).

3.5.4.2 위로 가로획을 뚫고 지나간 것

①干→土 : ◦舍→舍 : 尼舍→尼舍(『東』·2·4·B/『大』·1·8·B/『東』·2·4·D/『大』·1·8·D). ◦館→館 : 慕華館→慕華館(『大』·1·8·A), 慕華館→慕華館(『方』·1·8·A), 館基→館基(『東』·2·4·A/『大』·1·8·A/『方』·1·8·A).

3.5.4.3 아래로 가로획을 뚫고 지나간 것

①角→角 : ◦角→角 : 三角山→三角山(『青』·4·16·14/『東』·2·4·B/『方』·1·8·B).

3.5.4.4 점이 위치가 바뀐 것

①沙→沙 : ◦沙→沙 : 沙河里→沙河里坪(『要』·2·16·14), 沙平里→沙平里(『要』·2·16·14/『東』·2·4·D/『方』·1·8·D), 沙川→沙川(『要』·2·16·14/『東』·2·4·A/『方』·1·8·A).

3.6 A자를 B자로 교체한 것

이 부류에 속하는 것은 뜻이 같거나 음이 같은 글자로 바꾼 경우이다. 예를 들면 銅→洞·驛→駟·站→店·黑→玄·窯→窟 등으로 교체되었다. 또 행정구역이 바뀐 것도 있는데, 驛→面·浦→洞으로 바뀌었다.

4. 京兆 四大門밖 지역 나타난 한자 異體字의 特徵

3장에서 이체자형의 다양한 양상을 분류 귀납하였다. 이를 통해 고지도에 나타난 이체자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지도에 나타난 이체자형의 가장 큰 특색은 자형의 간략화이다²⁸⁾. 이런 간화현상은 다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부류로 나타난다. ①간략한 A字를 차용하여 B의 이체자로 사용한 경우이다. 이런 자형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 대부분 B의 이체자로 확정되었다. ② A字의 간략한 이체자형 a를 B의 이체자형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③민간에서 널리 사용하는 초서체를 그대로 楷書化한 경우이다. ④간략한 구조의 후기회의자와 후기 형성자를 창조한 경우이다. ⑤간략한 편방으로 교체한 경우이다. ⑥편방을 부호화한 경우이다. ⑦부건을 생략한 경우이다. ⑧부건을 부호화한 경우이다. ⑨필획을 생략한 경우이다. ⑩분리된 필획을 연결하여 서사한 경우이다. 이와 같은 간략화 추세는 한정된 공간에 각종 자연·인문 정보를 필사 또는 판각 형식으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楷書 통용 단계에서 만들어진 後起字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후기 회의자의 사용 빈도가 꽤 높게 나타났다. 이는 小篆보다 간략하고 表意性도 뛰어난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어문생활에서 한자를 주요 도구로 하지 않은 한국에서는 한자의 표음화를 추구하기보다는, 表意 기능을 되살린 회의자의 채택과 창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이체자의 탄생 경로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체자의 탄생경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①A자가 외형적인 변이를 통해 a라는 자형을 낳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이체자형의 탄생 경로이다. ②A자를 빌려 B의 이체자로 삼거나, A의 이체자 a를 B의 이체자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28) 고지도에 나타난 이체자형의 가장 큰 특징은 간략화이다. 그러나 때로 서사습관으로 점을 찍는 것과 같은 加筆현상과 다른 비슷한 편방의 간섭현상으로 편방이 혼합되는 경우 繁體化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부류는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한정된 공간에 갖은 정보를 표기해야 하는 지도의 특성상 희귀한 현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전자는 万과 萬, 후자는 旧와 舊의 관계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때 A나 a는 원래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𠄎用字이며, 자형 구조 역시 B 보다는 간략하여 임시로 빌려쓰기에 안성맞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월의 추이에 따라 대부분 B의 이체자로 확정된다. ③사회의 발전과 풍속의 변화로 이체자가 탄생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館과 館의 관계가 그런 사회 상황 변화를 잘 표현하고 있다²⁹⁾.

넷째, 중첩된 편방을 과감하게 생략기호로 대체하였다는 것이다. 糞·糞처럼 중첩된 편방인 𠄎을 생략부호인 ㄷ·ㄴ·ㄹ·ㅁ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고대 문헌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필사나 판각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대다수의 이체자는 이미 중국문헌에서도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이체자형은 한국 고유의 것이라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塵의 이체자로 사용된 ‘广’의 경우, 비교 결과 아직 중국 문헌에 수록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擅자의 편방이 혼합된 이체자형인 ‘𠄎’, 廣의 이체자형인 ‘𠄎’도 아직까지는 중국의 이체자를 모아 놓은 유관문헌에서 발견할 수가 없었다. 또한 院(院)의 편방으로 쓰인 𠄎(β)자형도 중국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향후 고지도에 수록된 한국 특유의 이체자의 수집과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5종의 고지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大東方輿全圖』에 수록된 자형이 가장 규범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大東方輿全圖』가 『大東輿

29) 『說文·食部』에서 :“館, 客舍也. 從食, 官聲. 『周禮』五十里有市, 市有館, 館有積, 以待朝聘之客(館은 객사이다. 食을 의미부로 官을 소리부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周禮·地官·遺人』에서 오십 리마다 저자가 형성되어 있으며, 저자에는 객사가 있고, 객사에는 양식이나 마초 등을 마련해 놓고서 조문이나 인사 가는 손님들을 맞이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館’은 과객에게 ‘食(음식)’과 ‘宿(잠자는 집)’을 제공하는 곳이다. ‘館’이 ‘館’이라는 이체자를 낳게 된 원인은 객사가 애초에는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였으나, 후에 주로 잠자리만 제공하게 되었고, 음식은 밖에 나가 먹게 되는 시대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館’은 음식제공을 강조한 자형이고, ‘館’은 머물러 가는 집을 강조한 자형이다. 자세한 것은 李景遠「王仁昫『刊謬補缺切韻』에 수록된 이체자 연구-形符改換字例를 중심으로-」(中國語文學論集第17號, 74쪽)를 참고 바람.

地圖』가 완성되고 난 뒤에 필사된 것이라고 추정하는 방증이 된다. 『大東方輿全圖』가 선행된 작업이라면 후속된 『大東輿地圖』를 판각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원래 자형을 존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大東輿地圖』보다 『大東方輿全圖』의 자형이 규범적이라면, 당연히 『大東方輿全圖』가 뒤에 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大東方輿全圖』는 필사본이어서 판각본보다는 훨씬 규범적인 자형을 필사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복잡한 구조의 한자는 판각하는 것 보다는 필사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지도의 선후 문제는 보다 종합된 자료가 구축된 뒤에야 판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고지도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가 진행된다면, 혹 이에 대한 의문도 확연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5종 지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A자를 B자로 바꾼 것이 발견되었다. 즉 驛을 동일한 뜻을 지니고 상대적으로 형체가 간략한 駟로 바꾸거나, 驛을 面으로, 站을 店으로, 浦를 洞으로, 銅을 洞으로 바꾸었다. 고지도에 나타난 이체자형에 대한 자료 수집이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면 고지도의 선후 또한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여덟째, 5종 지도에 나타난 이체자는 자형의 근사성으로 인해 발생한 이체가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萬을 대신한 이체자형 万은 巧와 考의 이체자형인 万과 자형이 근사하여 때로 万으로 오기된 경우가 있다. 萬里峴을 万里峴이 아닌, 万里峴으로 오기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서 규장각고지도 원문부여의 해당부분 지명보기에 ‘교리현’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 외에 수많은 편방·부건·필획이 변이된 이체자형은 고지도 연구의 장애물이다. 이런 난관을 돌파하기 위하여 可讀性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고지도 이체자형에 대한 정밀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하다고 사료된다.

5. 結論

본고에서는 『大東輿地圖』등 5종의 고지도에 나타난 이체자의 양상을 분류귀납하고 아울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고지도에 수록된 이체자의 점유율

은 상당히 높고, 이체자의 양상은 매우 복잡다양하게 나타났다. 고지도는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의 보고이며, 또한 이체자가 보존되고 생성되는 전당이기도 하다. 고지도에 나타난 이체자에 대한 연구는 무엇보다도 기존 연구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1936년 경성제국대학법문학부에서 출간한 奎章閣叢書第二別冊인 『大東輿地圖索引』22쪽에 표기된 『大東輿地圖』19첩 9면³⁰⁾ ‘歸龍山’은 ‘臥龍山’의 오류이다. 지도에는 ‘**臥**龍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색인 작업자가 ‘**臥**’를 ‘歸’자로 오인하였거나, ‘歸’의 이체자인 ‘故’으로 오인한 결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체자 연구를 통해 고지도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이 우선 과제이며, 진일보하여 독자가 원본을 그대로 판독할 수 있는 경로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본고는 고지도에 수록된 이체자의 양상을 분류하고 특징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고지도에 나타난 이체자형의 각종 양상을 전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장차 이런 탐구 과정을 통해 이체자의 변이 규율을 정형화하여 지도 판독 시 이체자의 정자 인식의 경로와 첩경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체자의 양상을 전체 자형이 변이한 것·편방에 변이가 발생한 것·부건에 변이가 발생한 것·필획에 변이가 발생한 것·다른 글자를 오용한 것·다른 글자와 바꾼 것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후속되는 전면적인 연구의 시작으로, 고지도 이체자의 양상을 정형화시켜 讀圖의 便宜性과 的確性을 제고하게 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일련의 분석귀납과정을 통해 고지도 이체자형의 변이 현상을 전체자형에서 찾는 법·편방부분에서 찾는 법·부건 즉 부분 편방에서 찾는 법·필획에서 찾는 법 등 변이 양상을 찾는 범위 역시 정형화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변이 양상과 규율을 통해 고지도 이체자형 인식방법이 구축되면 讀圖者는 해당 이체자의 정자를 추정하고 확정하는 경로와 첩경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체자는 고문헌 연구에 저해 요인이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는 우리나라

30)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大東輿地圖』 원문뷰어에서는 19첩 3면에 해당한다.

고대 역사와 선조의 지혜가 내재된 문화유산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연구가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고지도 판독은 물론이고 이체자 자료의 수집과 연구에 소기의 공헌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참 고 문 헌

- 金正浩, 『靑邱圖』,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뷰어,
http://e-kyujanggak.snu.ac.kr/GZD/GZD_JIMYUNGS.jsp?ptype=class&subtype=js2&lclass=01
- 金正浩, 『靑邱要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뷰어,
http://e-kyujanggak.snu.ac.kr/GZD/GZD_JIMYUNGS.jsp?ptype=class&subtype=js2&lclass=01
- 金正浩, 『東輿圖』,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뷰어,
http://e-kyujanggak.snu.ac.kr/GZD/GZD_JIMYUNGS.jsp?ptype=class&subtype=js2&lclass=01
- 金正浩, 『大東輿地圖』,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뷰어,
http://e-kyujanggak.snu.ac.kr/GZD/GZD_JIMYUNGS.jsp?ptype=class&subtype=js2&lclass=01
- 金正浩, 『大東方輿全圖』,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뷰어,
http://e-kyujanggak.snu.ac.kr/GZD/GZD_JIMYUNGS.jsp?ptype=class&subtype=js2&lclass=01
- 東漢·許慎撰 清·段玉裁注, 『說文解字注』, 台北, 天工書局, 1987年
- 梁·顧野王, 原本『玉篇』殘卷, 北京, 中華書局, 1985年
- 梁·顧野王編 唐·孫強增修 宋·陳彭年重修, 大廣益會『玉篇』, 北京, 中華書局, 1987年
- 唐·張參, 『五經文字』, 清·鮑廷爵, 『後知不足齋叢書』初編
- 唐·唐玄度, 『九經字樣』, 清·鮑廷爵, 『後知不足齋叢書』初編
- 明·梅膺祚, 『字彙』,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1年

- 中華民國國民黨政府, 『第一批簡體字表』, 1936年
- 金正浩, 『大東輿地圖』, 奎章閣叢書第二,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 1936年
-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 『大東輿地圖索引』, 奎章閣叢書第二別冊,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 1936年
- 中國人民共和國國務院, 『漢字簡化方案·第一表』, 1956年
- 潘重規, 『敦煌俗字譜』, 台北, 石門圖書公司, 1978年
- 金榮華, 『韓國俗字譜』,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6년
- 국립국어연구원, 『우리나라 漢字의 略體調查』, 국립국어연구원, 1991년
- 국립국어연구원, 『漢字略體調查研究』, 국립국어연구원, 1993년
- 李景遠, 「王仁昫『刊謬補缺切韻』에 수록된 이체자 연구- 形符改換字例를 중심으로 -」, 『中國語文學論集』第17號, 서울, 中國語文學研究會, 2001.6
- 李圭甲·李景遠·李浚頤, 『한국 한자 이체자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2002년
- 中華民國教育部國語推行委員會編,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典』, 台北,
<http://dict.variants.moe.edu.tw/main.htm>
- 李景遠, 「우리나라 漢籍 자료에 나타난 異體字의 樣相과 偏旁 變異 規律에 대한 연구」, 『中國語文論譯叢刊』第27輯, 서울, 中國語文論譯學會, 2010.7

❖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about the variant form of the Chinese character in the five sorts of old maps drawing outside of the four main gates of old Seoul including DeDongYei-jido

Lee, Kyeong-Won

The goal of this thesis is to make a comparative study about the variant form of the Chinese character in the five sorts of old maps drawing outside of the main gates of old map including DeDongYei-jido. The main task of this thesis can be classified under three heads - ① introducing the literature of comparative study in the five sorts of old maps including DeDongYei-jido ② classification of variant form in the five sorts of old maps ③ characteristic of variant form in the five sorts of old maps.

In this thesis, aspect of variant form is classified under six head - ① variation of the whole shape of the character ② taking place the variation in both sides of Chinese character ③ taking place the variation in part ④ taking place variation in the strokes of the Chinese character ⑤ misusing different characters ⑥ changing different characters.

This thesis explains some characteristic of variant form - ① simplification of the shape of characters ② using the *Hou-qi-zi*(後起字, Chinese character which is actually the same but made the next) ③ replacing the overlapped both sides of Chinese character with omit mark ④ a wrongly written character ⑤ discovering the variant form such as 𠄎 variant form of 廣, 𠄎 variant form of 廛, 𠄎 variant form of 院 which was not recorded in Chinese literature.

From now on, there should be some collections of variant form of Korean style and study. we are going to have to standardize aspect of variation and rule of variant form in old maps until we have to make some ways to recognize the block letter.

Key Words

대동여지도, 이체자의 양상, 이체자의 특징, 이체자의 변이규율, 이체자의 정자 확인 방법

DeDongYei-jido, aspect of variant form, characteristic of variant form, variation rule of variant form, way to check on the standardized form of Chinese characters

논문접수일: 2010. 10. 26.

심사완료일: 2010. 12. 01.

게재확정일: 2010. 12. 10.